1. 다음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한 계획표이다. 지도에서 이동해야 할 경로를 옳게 표시한 것은? [2점]

일차	유적 이름	유적 개요
첫째 날	○○리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됨.
둘째 날	△△리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발굴, 조사된 구석기 유적임.
셋째 날	□□□ 동굴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 유골이 출토되어 '흥수아이'로 이름 붙여짐.
넷째 날	◇◇ 바위그늘	동굴이 아닌 바위 그늘 유적으로 호모 사피엔스의 인골이 출토됨.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라) → (다) → (나)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다) → (라) → (가)
⑤ (라) → (다) → (나) → (가)

정답: ②

* 구석기 유적지

연천 전곡리: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아슐리안형 양면 핵석기로서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세계 전기 구석기 문화가 유럽 ·아프리카의 아슐리안 문화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찍개 문화전통으로 나누어진다는 기존의 H.모비우스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1978년 발견)

공주 석장리: 남한 최초로 발굴된 선사 유적지로서(1964) 석기 가공기술 정도로 파악해 보면 전형적인 후기 구석기 유적지이지만 전기~후기에 이르는 구석기 자료가 모두 출토되었다.

청원 두루봉 동굴(1976): 남한 최초의 인골인 '흥수아이' 인골(h/s/s: 슬기슬기인)이 출토된 특징이 있다(1983).

단양 상시 바위그늘: 남한 최초의 홍적세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정확히는 호모 하이델베르크시스) 특징을 가진 인간의 화석이 발견되어 한국인의 기원과 형성 문제를 찾는 작업에서 의미가 큰 유적이다(1981).

2. 다음 내용이 담긴 역사서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 옳은 것은? [2점]

> 처음에 누가 나라를 열고 바람과 구름을 이끌었는가? 석제(釋帝)의 손자, 그 이름은 단군(檀君)이로세. 본기에 이르기를, 상제(上帝) 환인(桓因)에게 서자가 있어 웅(雄)이라 하였는데, 일러 말하기를, "삼위태백에 이르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弘益人間] 한다."라고 하였다.

① 한 무제의 침략에 맞서던 고조선의 왕검성이 기원전 108년에 함락되었다.
②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패함으로써 옛 고조선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였다.
③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였다.
④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하면서 자주적 전통 사상이 약화되었다.
⑤ 고려가 몽골과 강화한 이후 정치·문화적으로 자주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정답: ⑤

* 고려 후기 자주적.민족적 역사관의 배경: 제왕운기에 실린 단군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역사서로는 해동고승전,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을 꼽을 수 있다.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은 삼국 시대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제왕운기(帝王韻紀): 고려 시대의 학자 이승휴가 충렬왕 13년(1287년)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시로 쓴 역사책이다. 상·하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기술했다

④ 김부식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진압한(1135) 후 분열된 민심을 재수습하여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대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금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합리적인 관료 정치를 통해 자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⑤ 제왕운기는 원의 간섭기 기간(1270 ~ 1351)에 작성되었다.

3. 다음은 중국인이 그린 백제 사신의 모습이다. 사신을 파견할 당시 백제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당을 상대로 신라와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② 중국의 요서 지방을 점거하고 세력을 크게 떨쳤다.
③ 고구려의 압박에 시달려 북위에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였다.
④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외교 관계를 맺고 실리를 추구하였다.
⑤ 웅진에 수도를 두고 중국 남조의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정답: ⑤

* 양직공도와 백제의 상황(6C 초 무령왕)

6세기 양(梁)나라(남조) 시대에 제작된 사신도(使臣圖). 원본에는 25개국 정도의 사신들이 그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이중 12국 사신들 모습만 남아 있다. 특히 '백제국사(百濟國使)'라는 이름이 붙은 그림과 여기에 대한 서술은 6세기 초 웅진 시대의 백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기록을 보면, 백제에 대해 "마한(馬韓)에서 시작된 나라이며, 중국의 요서(遼西) 지방을 차지해 다스렸다. 고구려와 말씨 및 옷차림이 비슷하며, 백제 무령왕(武寧王)은 고구려를 크게 격파했다는 사실을 알려온 적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백제가 다스리는 탁국(卓國)·다라(多羅)·전라(前羅)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한편 백제국사 초상은 현존하는 회화 자료 중 백제인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① 무왕은 친당책(親唐策)을 써서 624년(무왕 25)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당나라 고조)로부터 대방군왕 백제왕(帶方郡王百濟王)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먼저 당과 수교한(621, 진평왕) 신라와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② 근초고왕(346~375) 때에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여 요서, 진평 2군을 설치하였다.

③ 개로왕 때에 고구려의 남하정책을 막기 위해 북위(北魏)에 원병을 청했으나(걸사표) 거절당하였다(472). 이후 장수왕의 침공을 받아 살해당하고 수도 위례성을 빼앗기며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였다(475).

④ 장수왕 때(412~491)에는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 정책을 써서 중국을 견제하였다

⑤ 무령왕(501~523) 때에 남조인 양(梁)과 수교하고 고구려를 자주 공격하여 무찔렀다.

4. 다음은 6세기에 세워진 신라의 비석들을 표시한 지도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 – 법흥왕대에 건립된 비석으로 율령의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나) – 왕과 여러 귀족의 합의 처결에 바탕을 둔 6부 체제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다) – 진흥왕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과정을 보여 주는 비석이다.
④ (라) – 조선 후기에 김정희에 의해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임이 고증되었다.
⑤ (마) – 다섯 개의 비석 중에서 가장 늦게 건립되었다.

정답: ①

* 6세기 신라의 비문

(가) **냉수리 비문**: 503년 지증왕 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고비(古碑)이다. 이 비문에는 중국 문서에서 발견되는 신라의 옛 국명인 사라(斯羅)가 최초로 나오고, 또 최초로 임금(지증왕)의 본명이 '지도로'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으며, 훼부(喙部) ·사훼부(沙喙部) 등 신라의 옛 지명과 아간지(阿干支) ·나마(奈麻) 등의 관등명이 나타나 신라 상대(上代)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나) **봉평리 비문**: 524년(법흥왕 11)에 세워진 신라의 비석. '신라육부(新羅六部)'라는 구절이 판독됨으로써 이 비가 건립되기 이전인 6세기 초 이전에 이미 6부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단양 적성비**(550~551): 진흥왕이 적성 점령에 대한 포상과 그 지역에 대한 대민 회유 무마책에 대한 내용이다. 신라의 한강 상류 진출을 보여주고 있다

(라) **북한산비**(555~568): 진흥왕이 새로 공략한 국경 지대를 순시한 다음 세운 기념비이다. 신라의 한강 하류 장악을 보여주고 있고 조선 후기 김정희에 의해 고증되었다.

(마) **마운령비**(568): 진흥왕이 황초령비(568)와 함께 함경남도 지역까지 진출했음을 보여주며 가장 늦게 건립되었다. 진흥왕 순수비 중에서 가장 뚜렷한 관직, 인명이 나타났고,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교 사상이 드러나 있다. 최남선이 고증하였다.

5. 다음 글에서 제기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선대 임금이 공평하게 나누어 준 토지가 한 집안 부자(父子)의 사사로이 소유하는 바가 되어 한 번도 조정에 벼슬하지 않은 자와 한 번도 군대에 가지 않은 자가 편안히 앉아서 이익을 누리며 관리를 멸시하나, 개국 공신의 후예와 왕을 시위하는 신하 및 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과 군사는 도리어 1무(畝)의 토지도 얻지 못하여 부모 처자를 봉양하지 못한다. …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흉한 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모두 이를 가리켜 조업전(祖業田)이라 하여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5~6명을 넘으며, 1년에 조세를 8~9차례나 거두게 되었다.

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세습이 가능하였다.
② 녹봉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 지역 토지를 지급하였다.
③ 문무 관리, 군인, 한인 등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다.
④ 소유지를 재분배하여 국가 수입을 늘리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켰다.
⑤ 수조권을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답: ⑤

* 조선 초기의 토지 제도 과전법

• 제시된 자료는 신진사대부 조준의 전제 개혁 상소문이다. 이를 통해 과전법이 시행되었다(1391).

•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려 후기 이래로 누적된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 말에 만들어진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①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하지만, 미망인, 유가족에게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다.

② 녹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로 인한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③ 전지(논.밭) 외에 시지(임야)도 지급한 것은 고려 전시과이다

④ 소유지를 재분배함이 아니라 수조권 토지를 새로이 설정한 개혁이다.

6. 빈칸에 들어갈 승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진평왕이 고구려로부터 자주 침략당하는 것을 근심하여,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려고 (　　)에게 걸사표를 지어 달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승려가 할 도리가 아니지만, 제가 대왕의 땅에 살면서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어찌 감히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곧 글을 지어 바쳤다.

① 세속 5계를 지어 화랑도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중국으로부터 선종을 수입하여 불교계의 쇄신을 꾀하였다.
③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주도하여 호국 불교의 전통을 확립하였다.
④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계의 종파 대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⑤ 관음 신앙을 널리 전파하여 고통받는 민중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 주었다.

정답: ①

* 원광 법사(걸사표)와 기타 승려 비교

원광(555~638): 신라 시대에 새로운 불교 지식을 신라에 보급한 업적이 큰 승려이다. 그가 지은 세속오계는 이후 화랑도의 중심 이념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608년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대응하고자 수나라에 구원군을 요청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걸사표).

② 신라 말 선종을 도입한 공식적 최초의 승려는 도의 선사로 알려져 있다(821). 선종 9산 중 가지산파를 개창하였다(장흥 보림사).

③ **자장**: 선덕여왕 때 대국통이었으며,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했다(643).

④ 신라 불교의 여러 종파 중 하나로 모든 중생은 부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의 시조가 원효이다(617~686). 그는 여러 경론을 연구하여 '화쟁'의 논리 하에 대립적인 측면을 지양(止揚)하였다.

⑤ 의상(625~702)은 당나라 지엄(중국 화엄종 제 2조)에게서 화엄종을 연구했고, 귀국 후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으며,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7. 다음 한시를 활용하여 역사 수업을 하려고 할 때, 수업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

①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② 신라 말 도당 유학생의 활약
③ 고려 인종대 서경 천도 운동
④ 조선 세종대 북방 영토의 개척
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승전

정답: ①

* 을지문덕의 ‘여수장우중문시’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 중 살수대첩(612) 당시의 을지문덕이 수나라 별동대장 우중문을 조롱하는 시이다.

“귀신 같은 꾀는 천문을 구명하고 신묘한 셈은 지리에 통달했네. 전승의 공은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았으면 그치기를 바라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수 양제는 612년 1월 113만 3800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였다. 그 가운데 수군은 바다를 건너 대동강으로 쳐들어와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고구려군에게 대패하였다.

한편 양제가 친히 거느린 육군의 1개 부대는 고구려의 요동성을 포위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초조한 수군은 별동대 30만 5000명을 압록강 서쪽에 집결시켜 평양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들의 계략을 눈치챈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유도작전에 걸려들어 살수(薩水:淸川江)·압록강를 건너 평양성 부근까지 깊숙이 쳐들어왔다.

이때 을지문덕은 수군에게 거짓 항복하여 적진에 들어가 그들의 허실(虛實)을 탐지하고 돌아온 뒤 그의 유도작전에 걸려들어 평양성 부근까지 침입한 수군의 대장인 우중문(于仲文)에게 1편의 시(詩)를 지어 보내 그의 어리석음을 비꼬았다(여수장우중문시).

수군은 고구려에게 속은 줄 알고 황급히 다시 북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나, 을지문덕은 수군이 살수를 반쯤 건널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감행하였다. 살수싸움에서 수군이 크게 패하여 살아 돌아간 자는 몇 천명에 불과할 정도였다고 한다.

② 최치원의 ‘추야우중(秋夜雨中)’
③ 정지상의 ‘송인(送人)’
④ 김종서의 ‘호기가(浩氣歌)’
⑤ 이순신의 우국충정을 담은 제상 미상의 한시(漢詩) 3수가 전해지고 있다.

8. 다음은 신라의 5소경이 있었던 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가) -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 문서는 이곳 소속의 촌을 조사한 것이다.
② (나) - 5소경 중에서 가장 일찍 설치되었다.
③ (다) - 신라 말에 반란을 일으킨 양길의 세력 거점이었다.
④ (라) - 우륵이 머물면서 신라에 가야 음악을 전수한 곳이다.
⑤ (마) - 중국과 일본, 서역 상인들이 찾아와 무역을 했던 신라 최대의 교역항이었다.

정답: ②

* 통일 신라 5소경

소경(小京)은 이미 통일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아시촌소경(지증왕 14년 514년, 함안), 국원소경(진흥왕 18년, 충주), 북소경(선덕여왕 8년 639, 강릉). 그렇지만 당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최초의 소경 아시촌소경은 폐지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후대 5소경에서 제외됨).

그러다가 658년(무열왕 5년) 북소경(강릉)을 폐지하고 삼국을 통일한 뒤 678년(문무왕 18)에 북원소경(北原小京, 원주)이, 680년(문무왕 20)에 금관소경(金官小京, 김해)이 각각 설치되었다. 그리고 685년(신문왕 5)에 서원소경(西原小京, 청주)과 남원소경(南原小京, 남원)이 설치되었고, 이와 함께 557년에 설치되었던 국원소경이 중원소경(中原小京)으로 개칭되면서 마침내 5소경으로 정비되었다.

① 정창원 소재 신라 민정문서는 서원경(청주) 소속 주변 촌락 자료이다

② 충주(중원경)은 5소경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소경이다(557)

③ 양길의 거점은 원주(북원경)이다

④ 우륵이 머물던 곳은 당시는 국원경, 통일 이후에는 중원경이고 오늘날 충주이다. 가야금을 타던 곳이라 하여 탄금대라는 명칭이 있다.

⑤ 통일 신라 때의 최대 교역 항구는 경주에서 가까운 울산항이고 당, 일본 뿐만 아니라 이슬람 상인까지 와서 무역을 하였다.

9. 다음은 중국 사서의 기록이다.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시조가 죽자 그 아들 ㉠무예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였다. 동북의 오랑캐들이 두려워하여 그에 복종하였다. 사사로이 연호를 인안이라고 하였다. … 무예가 죽자 그 아들 ㉡흠무가 왕위에 올라 연호를 대흥으로 고치니, 당 현종이 그에게 아비의 직위를 이으라는 조서를 내렸다.

① ㉠과 ㉡은 각각 발해의 무왕과 문왕의 이름이다.
② ㉠의 재위 시기에 일본에 국서를 보냈다.
③ ㉠의 재위 시기에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
④ ㉡의 재위 시기에 요동 지방을 확보하였다.
⑤ ㉡의 재위 시기에 상경과 동경으로 천도하였다.

정답: ④

* 발해 무왕(대무예)과 문왕(대흠무)

무왕(재위:719년~737년):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732),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733). 또,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726년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어받았다(復高麗之舊居 有夫餘遺俗)"라고 주장하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문왕(재위:737년~793년):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또한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으로 옮겼는데 이는 이러한 지배 체제의 정비(동해안쪽으로 진출)와 국력 신장을 반영한 것이다.

발해는 무왕과 문왕 시기의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무왕), 대흥. 보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9세기 전반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 제도도 정비하였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10. (가)~(마)의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나)

(다)

(라)

(마)

① (가)와 비슷한 불상이 일본에도 있어 우리 문화의 일본 전파를 보여 준다.
② (나)의 여러 면에 불상이 부조된 것으로 보아 신라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③ (다)는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선종과 관련이 있다.
④ (라)는 고구려의 대표적 무덤의 하나인데 무덤방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⑤ (마)는 발해의 석상으로, 무덤을 지켜 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④

* 고대의 문화재

(가)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삼국)
(나) 진전사지 3층 석탑 (신라 말)
(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신라 말)
(라) 장군총 (고구려)
(마) 발해 돌사자상 (정혜공주묘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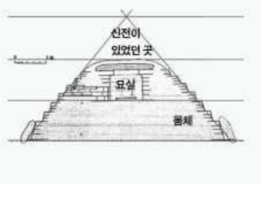
①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83호)과 거의 같은 목조 미륵반가사유상이 일본 광륭사(廣隆寺 : 고류지)에 있어 흥미롭다.

이것은 일본 국보 제 1호로서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적송으로 만들어졌으며 한반도에서 건너갔거나, 재료를 가져가 만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에서 만들어져 일본으로 건너갔거나 도래인(渡來人)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신라 말기에는 석탑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들을 새긴 것으로 이름이 나 있다.

③ 신라 말기에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고 그 대표적 예가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다

④ 그림에서 보듯이 묘실이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⑤ 사자상은 잡귀를 쫓고 무덤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

11. 다음은 고려 말에 왜구를 격퇴시킨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가) - 우왕 때 최영은 이곳에 출정하여 왜구를 섬멸하였다.
(나) - 정지가 이끈 수군은 화포를 사용하여 왜선 17척을 격침하였다.
(다) - 이성계는 이 지역까지 들어온 왜구를 황산에서 크게 무찔렀다.
(라) - 최무선은 새로 제작한 화포를 사용하여 수백 척의 왜선을 불태웠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②

* 고려 말 왜구의 침입 격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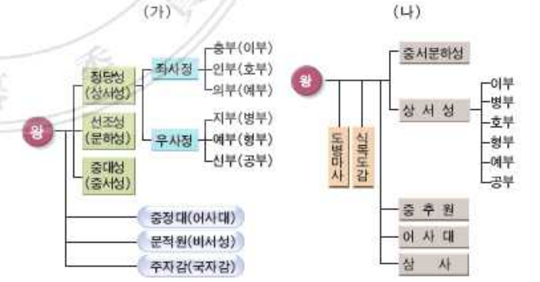
(가) **홍산**: 1376년(우왕 2)에 최영(崔瑩)이 충청남도 홍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싸움.

(나) **진포**: 고려 우왕 6년인 1380년 8월에 전라도 진포(금강하구)에서 일어난 고려군과 왜군의 해상 전투. 왜군은 군선과 군선을 연결하여 거대한 해상기지를 형성하여 위협전인 전세를 펼쳤지만 고려군은 최무선의 화포로 집중 공격하여 적선 500척을 모두 불살랐다

(다) **운봉**: 1380년(우왕 6) 9월 이성계(李成桂)가 전라도 지리산 근방 황산(운봉)에서 소년 장수 아지발도가 이끄는 왜구(倭寇)를 격퇴시킨 싸움.

(라) **관음포**: 고려 말인 1383년 5월(고려 우왕 9) 정지(鄭地)의 함대가 화포를 이용하여 관음포 앞바다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해전.

12. 다음은 어느 두 나라의 중앙 관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가)는 당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운영되었다.
② (가)의 문적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나)의 도병마사와 유사하였다.
③ (나)의 식목도감은 중국에는 없는 것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기관이었다.
④ (나)에서 중서문하성은 재부, 상서성은 추부로, 두 기구를 합쳐 재추라고 하였다.
⑤ (가)와 (나)에서 중정대와 중추원의 기능은 서로 비슷하였다.

정답: ③

* (가)발해, (나)고려의 중앙 관제 비교

발해: 중앙의 정치 조직은 3성과 6부를 근간으로 편성하였다.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인·의 3부를, 우사정이 지·예·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성하였다.

즉, <u>당의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u>.

이 외에도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중정대, <u>서적 관리를 맡은 문적원</u>, 중앙의 최고 교육 기관인 주자감 등이 있었다.

고려: 통치 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한 2성 6부제를 토대로 하였다. 고려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u>고려의 독자성을 보여 주는 관청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재신(재부)과 추밀(추부)이 함께 모여 회의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회의 기구의 존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u>.

한편, 재신과 추밀은 6부를 비롯한 주요 관부의 최고직을 겸하여 중앙의 정치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6부 판사제).

③ **식목도감**: 제도와 격식을 제정하던 법제 회의기관. 3성 6부의 중앙관제 이외에 별도로 설치된 2개의 회의 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또 하나의 회의기관이던 도병마사와 같이 고려 시대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였다.

⑤ 발해의 중정대는 감찰 기관이고, 고려의 중추원은 군국기무(추밀)와 왕명출납(승선)을 담당함으로 다르다

13. 다음 중에서 고려 시대 문화재를 모두 고른 것은? [2점]

(가)

(나)

(다)

(라)

(마)

① (가), (나), (라)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정답: ③

* 고려의 문화재

(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1310년(14세기)에 그려진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려 불화이다. 일본 가가미(鏡)신사에 소장되었다.

(나) **부석사 무량수전**(13C): 주심포.배흘림 양식의 대표 목조 건축물이다. 이 외에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이 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다.

(다) **청자소문과형병**: 경기도 장단군에 있는 고려 인종(仁宗)의 릉에서 '황통(皇統)6년(1146)'이란 연도가 표기된 책과 함께 발견된 청자 화병. 참외 모양의 몸체에 꽃을 주둥이로 삼아 표현한 매우 귀족적인 작품으로 긴 목에 치마주름 모양의 높은 굽이 받치고 있는 단정하고 세련된 화병이다. 국보 94호.

(라) **팔만대장경**(고려):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고종 때에는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1236~1251) 만에 이룩한 재조대장경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다. 8만 장이 넘는 목판이므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른다. 팔만대장경은 방대한 내용을 담았으면서도 잘못된 글자나 빠진 글자가 거의 없는 제작의 정밀성과 글씨의 아름다움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꼽힌다.

(마) **몽유도원도**(조선 초기): 화원 출신인 안견은 역대 화가들의 기법을 체득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 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몽유도원도는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하여 구현한 걸작이다. 안평 대군이 꿈 속에서 본 도원을 그리게 한 그림이다(일본 덴리 대학 소장).

14. 다음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있는 여러 나라에 관한 기록이다. (가)~(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지만,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 (나)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부족하였고,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 (다)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 농사짓기에 적합하였고, 민며느리제 풍습이 있었다.
> (라) 삼한 중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사람들은 곡식을 심고 누에를 치거나 뽕나무를 가꿀 줄 알았으며, 삼베를 만들었다.
> (마)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당하고, 철이 생산되어 한, 예, 왜인들이 모두 와서 사 간다.

① (가) –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② (나) –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책화(責禍)의 풍습이 있었다.
③ (다) – 어로와 농경이 발달하여 일찍이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④ (라) –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관리가 있었다.
⑤ (마) – 한강 유역에서 출발하여 커다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정답: ①

* 초기 국가들의 모습: (가)부여, (나)고구려, (다)옥저, (라)마한, (마)변한

①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등이 유명하였다. 또한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②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③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④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 부를 이루었다.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⑤ 백제는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의 결합으로 성립되었는데(기원전 18), 우수한 철기 문화를 보유한 유이민 집단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백제는 한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한의 군현을 막아 내면서 성장하였다

15. 다음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전까지는 제도 운영, 국왕 및 왕실 구성원 명칭, 국가 의례에서 실질적인 황제국을 지향하였다.

① 원구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하였다.
② 조(祖)와 종(宗)의 묘호(廟號)를 사용하였다.
③ 대부분의 왕들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왕자와 주요 왕족들을 '제왕(諸王)'이라고 표현하였다.
⑤ 3성 6부의 정치 체제를 도입한 후 2성으로 재편하여 운영하였다.

정답: ③

* 고려의 자주적 모습

① **원구단**: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유교적인 의례에 따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단을 일컫는다. 하늘을 상징하여 제단의 형태를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이름이 생겨났다.

고대 국가 때부터 제천의식이 행해졌으나 유교적인 예(禮)의 관념에 따라 제도화된 원구제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실시되었다. 고려 성종 때 새로운 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제도화했는데, 이는 왕권의 초월성을 강조하려는 국가의지의 소산이었다. 고려의 원구제는 중국의 이른바 천자국의 원구계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대상은 5방의 천신뿐만 아니라 그 전체 위에 군림한다는 호천상제(昊天上帝)도 포함했다. 그러나 고려 말 배원친명정책(排元親明政策) 이후 원구제는 폐지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국가의 사전(祀典)을 정비해가던 국초에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따라 제후 국가인 조선에서 '천자의 제천의례'인 원구제를 거행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천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만 제후는 땅(종묘.사직)에 지낸다는 논리였다.

그후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일환으로 대한제국 때 부활하였다(1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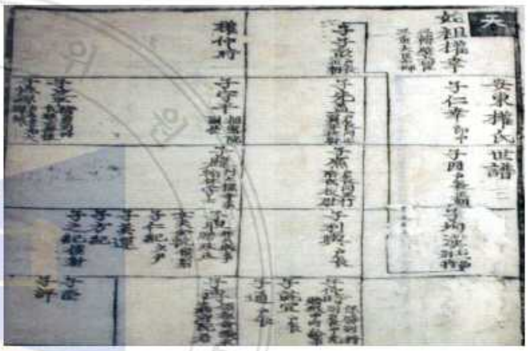
② 중국에서는 죽은 황제의 영(靈)을 태묘(太廟:조상의 영을 제사지내는 묘, 종묘)에서 제사지낼 때 사용되는 칭호로 추증되었다. 보통 조(祖) ·종(宗)을 붙여서 세조(世祖) ·고종(高宗) 등과 같이 표현한다. 왕조의 창시자를 태조(太祖) ·고조(高祖)라 하며, 그에 버금가는 공로자를 태종(太宗)이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는 자주성을 보여주는 것임.

③ 고려에서 연호를 사용한 왕은 태조(천수)와 광종(광덕, 준풍) 뿐이다.

④ 왕자, 왕족을 제왕이라 칭함은 국왕은 그 이상의 의미이다(황제의 의미)

⑤ 당의 3성 6부에서 3성(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을 2성(중서문하성, 상서성)으로 독창적으로 변형함은 독자성을 보여준다.

16. 다음은 조선 전기에 발간된 족보의 일부이다. 이 족보의 기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2점]



① 자녀 기재는 출생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다.
② 본가의 가계는 자세히 기록하였으나, 외손은 기록하지 않았다.
③ 사위들도 기재함으로써 실제로는 만성보(萬姓譜)의 성격을 가졌다.
④ 딸이 재혼하였을 경우, 후부(後夫)라 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⑤ 자녀가 없는 사람은 '무후(无后)'라고 기재하였고, 양자를 들인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정답: ②

* 조선 전기의 족보 기재의 특징

• <u>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는 상기의 '안동 권씨 성화보'이다</u>. 성화보는 1476년 간행된 안동 권씨 족보로 목판으로 찍어낸 3권의 책인데 중간본만 전해진다. 당시 중국 연호인 성화 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해서 성화보라 부르는데 <u>아들은 물론 딸과 그 자녀(외손)들을 모두 싣고 있어 아버지 쪽 성씨 자손과 구별하지 않았다</u>.

<u>자녀는 출생순서로 기록하였으며 양자를 들인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u>. 성화보에 실린 <u>안동 권씨는 380여명으로 다른 성씨도 8000여명 실려 있다(만성보: 萬姓譜)</u>.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u>딸을 기재할 때 오늘날과 같이 여(女)자 밑에 바로 서(壻)라 쓰지 않고 여부(女夫)라 쓴 다음에 사위의 성명을 썼다</u>. 오늘날의 족보 기재상의 문제점으로서 여 밑에 바로 사위의 이름을 써서 딸의 이름으로 오인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딸을 천시하는 경향이라 볼 수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또한, <u>딸이 재혼하였을 경우 후부(後夫)라 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도 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u>.

그 외에도 지금처럼 사속(嗣續)을 중요시하지 않아 <u>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름란 밑에 '무후(无後 또는 無後)'라고 기재하였고, 양자한 사실은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다</u>.

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는 관행은 조선 후기 적장자 위주의 가족제의 모습이다

17. 다음 건의안에 의해 채택된 법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2점]

> 천예(賤隷)들이 때나 만난 듯이 윗사람을 능욕하고 저마다 거짓말을 꾸며 본주인을 모함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옛일을 심각한 교훈으로 삼아 천인이 윗사람을 능멸하지 못하게 하고, 종과 주인 사이의 명분을 공정하게 처리하십시오. … 전대에 판결한 것을 캐고 따져서 분쟁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①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②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③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 ④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⑤ 노비추쇄법(奴婢推刷法)

정답: ②

* 역대 노비제의 변화(노비환천법)

고려는 건국 초기 비대해진 귀족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비안검법을 실시,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고 원래 양인이었던 자로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귀족세력에게 인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었다. 그러자 982년(성종 1) 최승로가 종량(從良)된 자들이 옛 주인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등 신분질서가 문란해진다고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종 때 노비에서 양인이 된 자를 다시 노비로 환천(還賤)시킬 것을 건의하였다(노비환천법)

① **노비안검법**: 고려 초기 광종 때(956)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한 법.

③ **노비종부법**: 양인이 비(婢)의 남편이 되는 경우가 더 성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양인의 비첩(婢妾) 소생을 종량(從良)시킬 목적에서 1414년(태종 14)부터 실시한 것이 이 법이다.

④ **노비종모법**: 조선 시대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役) 및 주인을 결정하는 데 모계(母系)를 따르게 한 법(1731). 조선 후기 양인 증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⑤ **노비추쇄법**: 노비추쇄(奴婢推刷)는 자기 상전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에 몸을 피한 노비를 찾아내어 본 고장에 돌려보내기 위해 제정한 법제이다.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는 노비의 수가 많아지고 또한 노비 내에 분화가 생겼다. 공천(公賤)은 사천(私賤)보다 권세가 컸고, 양민보다 더 우세하기도 하였다. 노비는 세습하여 신역(身役)을 바쳤으므로 도망자가 생기고 이를 막기 위해 추쇄도감(推刷都監)을 두기도 했다.

18. 다음 두 자료와 관련된 상황을 말해 주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부르고, 평양을 국도로 정하였다.
ㄴ. 별무반을 설치하여 산관(散官)과 아전들로부터 상인, 천인, 승려들까지 모두 입대시켰다.
ㄷ. 조휘는 화주 이북 땅을 들어 몽골에 투항하였다. 몽골은 이 땅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였다.
ㄹ. 동쪽은 화곶령까지, 북쪽은 궁한령까지, 서쪽은 몽라골령까지 정복하여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윤관의 동북 9성

예종 3년(1108년)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 천리장성 동북방의 여진족 정벌 후 쌓은 함주·복주·영주·길주·웅주·통태진·진양진·숭녕진·공험진 등 9성으로 자세한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분명히 알 수도 없는데, 이는 설치될 때의 9성과 여진에 돌려줄 때의 9성 명칭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진양진과 숭녕진 대신 의주, 평융진을 꼽기도 한다.

윤관이 9성을 구축하자 여진족은 생활 근거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에 완안부 오아속(烏雅束)이 중심이 되어 여러 차례 침범하는 한편 강화를 요청하여 9성의 환부를 요청했다.

그 후 적극적인 영토 확장책의 일환으로 사민(徙民)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개척 초기에는 개척 1년 만에 9성을 여진족에 돌려주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 이는 서희가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외교담판으로 얻은 서북지역의 강동6주에 관한 내용이다

㉡ 별무반은 문무산관(文武散官) 서리로부터 상인·복예 및 주민·부민·군민·현민에 이르기까지 말을 가진 자는 기병인 신기군, 말을 갖지 못한 자와 20세 이상의 남자로 과거를 준비하는 자가 아닌 사람은 보병인 신보군, 항마군(승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북 9성은 여진족과 항쟁 과정에서 얻은 것이지 몽골과의 관련은 아니다

㉣ <고려사> 윤관전에는 동으로는 화곶령(火串嶺)에 이르고 북으로는 궁한이령(弓漢伊嶺)에 이르며 서로는 몽라골령(蒙羅骨嶺)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 다음과 같은 비를 세웠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경남 사천 지역에서 발견된 비(碑)로, 4,100여 명의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왕의 만수무강, 나라의 부강, 백성의 평안 등을 기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보 기〉

ㄱ. 유교 윤리를 널리 보급하려 하였다.
ㄴ. 조선 시대 향촌 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ㄷ. 혼례와 상장례,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였다.
ㄹ.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ㅁ.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⑤

* 향도(고려, 조선의 농민공동조직)

불교 신앙의 하나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하여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을 매향이라고 한다. 이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들을 향도라고 하였다.

향도는 단순히 매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되어 갔다.

㉠ 유교 윤리 보급과 관련이 있는 것은 향약이다

㉡ 조선 시대 향촌 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은 농민이 아니라 사족(사림)이다.

20. 농업 개혁에 대한 실학자들의 주장을 옳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고른 것은? [2점]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정답: ⑤

*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토지제도

▪ **유형원**: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장하자고 주장하였다(균전제). 또한 종래의 결부법 대신에 경무법을 쓰고, 호구에 부과하던 역역을 토지에 일괄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 **이익**: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하한선 설정),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고 주장(한전제)

▪ **정약용**: 산골짜기와 시냇물의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하여 경계를 삼고(자연경계), 그 경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1여로 한다......1여마다 여장을 두며 무릇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여민들이 농경하는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 분배한다. 이 때 국가에 바치는 세와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 일수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공동 분배).

▪ **박지원**: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과도한 토지 집적을 막음으로 농민 몰락을 막자는 것(한전제)

을: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후에 결부법(토지 수확량을 통한 토지 면적 단위)의 폐해를 주장하고 정전제(井田制: 사전 8결, 공전 1결)를 주장한 사람은 정약용이다

21. 다음 (가), (나)는 어떤 시기의 농사법을 소개한 것이다. 당시의 농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2점]

> (가) 땅을 간 뒤, 곰방매로 흙덩이를 깨뜨리고, 써레로 종횡으로 골라 흙을 연하게 한다. 볍씨 한 말을 숙분(宿糞)이나 오줌재 한 섬과 섞은 뒤 이를 발꿈치로 흙을 치고 심고 재를 좇는다. 모가 성장할 때까지 물을 대 주어서는 안 된다. 잡초가 생기면, 가뭄이 들어 모가 말라도 호미질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 (나) 함경도는 땅이 비옥하여 논을 만들 곳이 많으나 풍속이 농사에 게으르고, 논에서 물이 몸에 젖고 흙이 발에 묻는 괴로움을 꺼려 밭농사만을 하므로 한 번 비가 와서 땅이 질척거리면 반드시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된다.

① 밭농사에서는 고랑에 파종하는 농법이 일반화되었다.
② 벼농사에서는 볍씨를 직접 논에 뿌리는 직파법(곧뿌림)이 주로 행해졌다.
③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어 대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④ (가)의 방법은 김매기에는 편리하였으나, 가뭄의 위험 때문에 국가에서는 금지하였다.
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쪽 지방에 수리 시설을 크게 확대하였다.

정답: ②

* 조선 전기의 농법

(가) 시비법 발달: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었다(휴경지 소멸).

(나)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함경도 지역에서 인기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정확한 출전을 알 수 없다.

• 조선 전기에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논농사도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모내기는 봄가뭄에 따른 수리 문제 때문에 남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시비법도 발달하여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었다. 쟁기, 낫, 호미 등 농기구도 개량되었다. 목화 재배도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으며, 약초와 과수 재배 등이 확대되었다.

① 견종법의 유행(조선 후기). 조선 전기는 주로 농종법(이랑에 파종)

② 직파법의 유행(조선 전기)

③ 모내기법(이앙법)의 확산으로 인한 광작의 유행(조선 후기)

⑤ 수리시설 확충은 주로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 지역으로 이루어졌고, 함경도 지방은 밭농사 위주라 그러하지 못하였다.

22. 지도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2점]

① 조창은 대부분 육상 교통로가 시작되는 내륙 지방에 설치되어 있었다.
②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거둔 조세는 육상 교통로를 통해 서울로 옮겼다.
③ 경상도에서 거둔 조세는 모두 낙동강을 통해 바닷가로 운송되었다.
④ 강원도에서 거둔 조세는 주로 한강을 통해 한성의 경창으로 수송되었다.
⑤ 제주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조세를 거두지 않았으므로 조운의 대상이 아니었다.

정답: ④

* 조선의 조운 제도

군현에서 거둔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하였다가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하여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깝고 특히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라서, 그 지역의 조세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썼다(잉류 지역).

① 조창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강가나 바닷가에 설치되었다.

②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의 조세는 잉류 지역으로 서울로 옮겨지지 않았다

③ 그림에서 보다시피 경상도의 조세는 소백 산맥을 넘어서 육로로 운송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④ 강원도는 가까운 한강을 통해 경창으로 운송되는 것을 볼 수 있다.

⑤ 제주 지역의 전세를 모두 현지에 보관하고 자체적으로 쓰도록 한 것은 왜적의 침입을 경계해야 하는 등 국방상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땅이 척박하여 곡식의 소출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세가 1결당 4두였지만 제주 지역은 그 반인 2두에 불과했다. 요컨대 자체 소비하기에도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가뭄이나 물난리라도 나면 오히려 중앙에서 곡식을 실어와야 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조세를 완전히 거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운송의 비효율성이 잉류의 가장 큰 이유로 사료된다

23. 다음 자료에서 밑줄 그은 '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점]

> 미국 상민(商民)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조선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귀 군주가 내치, 외교와 통상을 자주(自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회는 조선과 수호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본인도 이를 비준하였다. 조선이 자주국이 아니라면 미국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
> -미국 아서 대통령이 고종에게 보낸 회답 국서-

〈보 기〉

ㄱ. 조선에서 크리스트 교 선교의 자유가 처음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ㄴ. 조약 체결 과정에서 속방 조회(屬邦照會)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ㄷ. 조선이 서양과 맺은 첫 수호 통상 조약으로, 청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
ㄹ. 불평등 조약이기는 하지만 조선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청은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조선에서도 미국과 조약을 맺어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 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 협정 관세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 조불수호통상조약 때 이루어졌다(1886)

㉡ 속방 조회 문제란 "대조선국 군주가 조회(照會)하건대, 조선은 평소에 중국의 속방이 되었으나, 내치외교는 모두 대조선국 군주가 自主하였다. 이제 대조선국과 대미국은 피차 입약(立約)함에 함께 평행으로 상대하니, 대조선국 군주는 장차 조약 내의 각 정관을 반드시 자주 공례에 따라 인진조변(認眞照辨)할 것을 명윤(明允)한다. 대조선국이 중국의 속방임으로 인해 마땅히 행하게 되는 일체의 행사에 대해서는 대미국이 조금도 간섭할 바가 아니다"라고 써 있었다.

조선과 청의 사대 책봉 관계는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속국이면서 내치외교는 자주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조선과 수교한 모든 나라가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하였다.

24. 다음은 조선 시대 공신 수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책정 시기	공신 명칭	공신 수				
		1등	2등	3등	4등	합계
(가) 태조 원년(1392)	개국 공신	17	13	22		52
(나) 단종 원년(1453)	정난 공신	12	11	30		43
(다) 중종 원년(1506)	정국 공신	8	13	31	65	117
(라) 인조 원년(1623)	정사 공신	10	15	28		53

〈 보 기 〉

ㄱ. (가), (나), (다)는 왕이 교체된 후 신하들에 대한 논공행상의 성격으로 실시되었다.
ㄴ. (나), (다), (라)는 군사적 변란을 잠재운 공을 기려서 시행되었다.
ㄷ. (다)의 명분은 국왕이 폭정을 했을 때 유교 정치 원리에 입각하여 신하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ㄹ. (라)의 논공행상은 결과적으로 대외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 조선의 공신에 관하여

개국 공신: 조선 왕조 개창에 기여한 공신들로서 정도전, 조준 등이 1등 공신

정난 공신: 단종 때 수양대군(세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데 기여한 공신들로서 정인지, 한명회 등이 1등 공신

정국 공신: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의 공신들로서 박원종, 성희안 등이 1등 공신.

정사 공신: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 반정의 공신들로서 김자점, 이귀 등이 1등 공신

㉠ (나)는 단종 재위(1452~1455) 중에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고 실권을 잡았지 왕을 교체한 것은 아니다.

㉡ 모두 군사적 변란을 잠재운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거나(나), 반정의 공을 기린 것이다((나), (다)).

㉢ 폭군 연산군을 축출키 위해 신하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 인조 반정 과정에서 공이 큰 이괄(2등 공신)을 홀대한 것은 결국 이괄의 난(1624)과 정묘호란(1627)을 불러 일으켰다.

25. 다음은 조선 후기 광업의 변화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은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나) 잠채가 성행하였다.

(다) 설점수세제(設店收稅制)를 실시하였다.

(라) 정부에서 수세를 독점하였다.

(마) 수세하는 은점이 크게 줄었다.

① (가)는 청과의 무역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② (나)는 은의 수요 증대로 이득이 많았기 때문이다.
③ (다) 이후 정부에서 파견된 덕대가 광산을 운영하였다.
④ (라)의 업무를 담당한 기관은 호조였다.
⑤ (마) 이후 설점수세를 수령이 직접 관할하였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광업(민영 광산의 증가)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그러나 몰래 채굴하는 잠채가 성행하자 17세기에 이르러 허가를 받은 민간인에게 정부의 감독 아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였다(설점수세제).

즉 호조에서 은점을 설치(효종, 1651)하고 수세하며 정부의 감독 아래 허가를 받은 민간인의 광물 채굴을 허락한 것이다(호조 별장제). 이로써 민간인의 광물 채굴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나 활발하지는 않았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수령수세제로 전환(영조, 1775)되어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민간인이 광물을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도록 하였다(물주제-사채). 그리하여 이후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는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민영 수공업의 발달에 따라 그 원료인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금, 은, 동 등의 채굴을 촉진시켰다. 특히,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17세기 말에는 거의 70개소의 은광이 개발되었고, 18세기 말에는 상업자본이 채굴과 제련이 쉬운 사금 채굴에 몰리면서 금광의 개발도 활발해졌다.

그리하여 광산에 농민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농업에 지장을 주고 도망자들이 숨어들어 도적을 모아 변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채취를 금지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다(사채 금지).

그러나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이른바 잠채도 성행하였다.

③ 덕대는 광산의 주인(혈주)과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굴하여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

26.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인물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2점]

>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 생활을 주의로 삼는다. 개인과 개인의 균등은 어떻게 실현하는가? 정치 균등화, 경제 균등화, 교육 균등화가 이것이다. 보선제를 실행함으로써 정권을 제일(齊一)하게 하고, 국유제를 실행함으로써 경제를 제일하게 하고, 국비 의무 학제를 실행함으로써 교육을 제일하게 한다. 이로써 국내의 개인과 개인의 균등 생활을 실현한다. 민족과 민족의 균등은 어떻게 달성하는가? '민족 자결'을 자민족과 타민족에 적용하여 소수 민족과 약소 민족이 압박과 통치를 받는 지위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어떻게 국가와 국가의 균등을 도모할 것인가? 식민 정책과 자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려 약한 것을 겸병하고, 어두운 것을 공격하여 어지러운 것을 취하고, 망한 것을 모멸하는 전쟁 행위를 금지하여 일체 국가로 하여금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침탈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제 생활에서 평등 지위를 완전하게 하며, 나아가 사해 일가와 세계 일원의 구경(究竟) 목적을 도모하도록 한다.

① 민중 본위의 민족 해방을 위해 무력으로 제국주의를 타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민족 운동 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해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남북 지도자 회의에 참여하였다.
④ 진보당을 창당하여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저항하였다.
⑤ 사민 평등, 사해 동포주의에 입각하여 국가를 없애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답: ③

*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조소앙(1887~1959): 본관 함안. 호 소앙. 본명 용은. 자 경중.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다.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조선법학전수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다. 1919년 3·1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하여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 등을 지내고, 제네바에서 열린 만국사회당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1922년 임시정부의 내분을 수습하려고 김구·안창호 등과 시사책진회를 결성하고, 1930년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으며, 1937년 한국광복진선 결성에 한국독립당 대표로 참가하였다.

그는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상황을 겪으면서 중국 쑨원의 삼민주의)와 캉유웨이의 대동사상·무정부주의·사회주의 등 여러 사상들을 참고하여 좌우 절충적 정치사상을 제시함으로써 그 대립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삼균주의는 좌·우익 모두의 정치이념으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다만 임시정부 등 우익 중심의 민족주의 운동세력에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한국독립당의 강령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1년에는 임시정부의 건국이념 및 정책노선으로 채택되었다

1945년 8·15광복으로 귀국하여 국민의회를 조직하고, 상무위원회 의장을 거쳐 1946년 한국독립당 부위원장이 되었다. <u>1948년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김구 등과 남북협상에 참가하였다. 정부 수립에 불참</u>하였다가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전국 최고득점으로 당선되었으나,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저서에 《한국문원》(1932) 《소앙집》 《유방집》(1933) 등이 있으며, 1970년 삼균학회에서 《소앙문집》 상·하권을 간행하였다. 198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독립기념관 경내에 삼균주의 어록비가 세워져 있다.

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

② 30년대에 있었던 민족연합전선의 주장: 윤기섭, 성준영, 최동오, 유동열, 김규식, 김원봉 등

④ 진보당 창당(1956): 조봉암

⑤ 무정부주의자(정화암, 박열 등)

27.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의해 추진되었던 정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 • 16세기 초에 훈구파의 권력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 • 삼사의 언관직에 주로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公論)이라고 표방하였다.
> • 요순 시대와 같은 이상 사회의 구현과 도학 정치의 실현을 내세웠다.

〈보기〉

ㄱ. 현량과 실시　　ㄴ. 소격서 폐지
ㄷ. 국조오례의 편찬　　ㄹ. 소학 교육 장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 조선 중기 사림세력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을 사림이라 부른다. 이들은 훈구 세력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한 데 비해,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사림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훈구 세력을 견제하였다. 김종직과 그 문인이 성종 때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16세기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 15세기 훈구세력에 의해서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윤리와 의례에 관한 서적의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세종 때에는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으며, 성종 때에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하여 의례서인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

28. 지도의 빗금 그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백제의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마애불상이 만들어졌다.
ㄴ. 고려 시대에 조운선의 해난 사고가 빈번하여 운하 굴착을 시도하였다.
ㄷ. 18세기 말부터 천주교 신도가 늘어나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
ㄹ. 19세기 후반에 오페르트 일당의 남연군 묘 도굴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 충남 당진, 서산, 태안, 예산 지역

㉠ **서산 마애삼존불**: 중앙에 여래 입상의 거구를 양각하고 여래의 오른쪽에 보살 입상을, 왼쪽에 반가사유형 보살좌상을 배치하였다. 온화한 미소가 매우 특징적이어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운다.

태안 마애삼존불: 백제의 불상으로서 두 명의 여래와 한 명의 보살이라는 파격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조각 중에서 가장 희귀한 것이다

㉡ **굴포 운하**는 고려 인종 12년(1134년)부터 조선 세조 7년(1461년)까지 327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국내 최초의 운하로, 태안군 태안읍 인평.도내리(천수만)와 서산시 팔봉면 진장.어송리(가로림만)를 잇는 총연장 6.8㎞의 내륙 뱃길(폭 14m) 가운데 2.8㎞가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다.

㉢ 서산 지역은 천주교가 제일 먼저 보급되면서 조선 말기에 많은 순교자들을 냈다. 대표적인 순교지로 서산 간월, 해미 등이 있다.

㉣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충남 덕산(예산군 소재)에서 있었다.

29.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간사한 신하 김종직은 나쁜 마음을 품고 몰래 그 무리들을 모아 흉악한 계획을 시행하려고 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는 항우가 의제(義帝)를 죽인 일을 기록하여 세조를 나무라고 헐뜯었다. 이는 하늘에 닿을 만큼 악독한 죄이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대역죄로 논단하여 관을 쪼개어 송장의 목을 베게 하노라. 그 무리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는 간악한 덩어리로 뭉쳐서 서로 호응하고 도와 글을 칭찬하매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충정에서 나왔다고 사초(史草)에 기록하여 영원히 뒷세상에 전하고자 했으니 그 죄가 김종직과 같다. 아울러 능지처사하도록 한다.

① 학연을 매개로 여러 붕당이 난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관련된 예송 논쟁으로 비롯되었다.
③ 국가의 기본 법전 편찬 방향을 둘러싼 대립으로 발생하였다.
④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⑤ 지방 사족의 중앙 정계 진출과 정치적 성장이 발생 배경이었다.

정답: ⑤

* 조선 최초의 사화 무오사화(1498): 사초문제(조의제문)로 발생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사림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훈구 세력을 견제하였다.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성종 때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를 수 있었다.

성종을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 세력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사화(무오·갑자사화)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① 붕당은 사화 이후 즉 사림의 집권 이후의 문제이다

② 예송 논쟁은 붕당정치의 과정에서 일어난 서인과 남인간의 논쟁이다.

③ 법전 편찬은 사화와 관련이 없음

④ 사화를 통해서는 사림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⑤ 지방 사족(사림)의 중앙정계 진출과정에서 사화가 발생함

3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대 상황을 <u>잘못</u> 추론한 사람은? [2점]

- 적의 목을 벤 자, 납속을 한 자, 작은 공이 있는 자에게 모두 관리 임명장을 주거나, 천인 신분 또는 국역을 면하는 증서를 주었다. 병사를 모집하고 납속을 모집하는 담당 관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방에 내려갈 때, 이름 쓰는 곳만 비워 두었다가 응모자가 있으면 수시로 이름을 써서 주었다.
- 사관이 논한다. "… 임진년 변란 때 창을 거꾸로 들이댄 자까지 있었고, 임진년 뒤에는 반역하는 백성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왕실에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차지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가난한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불평하여 배반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해군, 순화군이 북방 백성들에게 묶여져 적에게 보내졌다. 뼈에 사무친 원망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하였겠는가."
- 광해군 원년 윤근수가 상소를 올렸다. "선왕께서 신하들에게 변경 방비를 묻기에 신이 곽재우를 추천하였습니다. … 재우가 산성 지키는 일을 그만둔 뒤로 쌀밥을 먹지 않고 솔잎만을 먹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김덕령이 뛰어난 용맹과 힘을 지니고도 모함에 빠져서 비명에 죽자 재우가 자신도 명장이므로 혹시나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이를 핑계로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① 한결 : 전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었을 거야.
② 승유 : 전공을 세운 사람은 납속을 하지 않아도 관리 임명장을 받았을 거야.
③ 지원 :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의병장들은 고위 관료로 진출했을 거야.
④ 지혜 : 전쟁 중에도 계속된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⑤ 민하 : 공명첩을 남발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신분 제도가 혼란스러워졌을 것 같아.

정답: ③

＊ 임진왜란 중의 상황

• 군공, 납속책, 공명첩을 통한 신분 상승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 상민들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노비들은 군공과 납속 등을 통하여 신분을 상승할 수 있었다.

• 정부에 분노하여 반기를 든 백성들
왜란 직전에 수취 제도가 문란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특히 <u>왕실의 궁방전은 민간인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빼았음에도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여</u>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다. <u>임해군, 순화군은 성질이 포악하여 무고히 백성들을 죽인 왕자들</u>이라 왜란 때에 함경도로 피난 도중 백성들에 의해 묶여져 왜군의 포로가 되었다.

• 광주 출신 의병장 김덕령의 모함사(1596)로 인한 의병장들의 몸사림

③ 의병장들은 왜란 초기에 무너진 관군을 대신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높아진 인기에 통치권의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오히려 역모를 씌워 제거를 하였다. 이몽학의 난과 관련되어 모함되어 죽은 김덕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곽재우의 예에서 보듯이 부패한 관료들의 시기와 모함을 두려워 한 의병장들의 몸사림으로 인해 의병장이 고위 관료로 진출한 예는 거의 없다.

31. 다음은 어떤 상인과 관련된 정부 기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상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혜상공국(惠商公局) → 상리국(商理局) → 농상아문(農商衙門) → 상무사(商務社)

① 관리와 결탁하여 대동미 수송을 전담하였다.
② 수송, 위탁, 중계, 대부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③ 황국 협회에 가입하여 독립 협회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④ 송도부기라고 하는 독자적 장부 기록법을 사용하였다.
⑤ 일제 강점 이후 조선 총독부의 비호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정답: ③

* 개항기 보부상 감독기구들

혜상공국: 1883년(고종 20) 보상(褓商)·부상(負商)을 통괄 관리하고 외국상인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기관.

1866년 병인양요 때 보부상들이 공을 세운 것을 계기로 대원군은 보부청을 설치하여 맏아들 이재면(李載冕)으로 하여금 전국 8도의 보부상단을 통합·관리하게 했다. 그러나 개항 후 일본·청나라·서구 상인들의 국내시장 침투가 시작되고 보부상단에 소속되지 않은 다수의 행상들이 상권을 침해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부청을 개편하게 되었다. 이후 보상단은 1879년에 부상단은 1881년에, 각각 정부에 의해 전국적인 조직이 결성되었다. 1883년 8월 19일에는 총리군국사무(總理軍國事務) 김병국의 건의에 따라 보부양단을 통합하여 군국아문 관할하에 혜상공국이 설치되었다. 설립목적은 '외국상인의 불법적 상행위를 막고, 외읍무뢰배의 불량행상의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보부상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민폐를 근절'하는 것이었다. 1885년 내무부에 속하면서 상리국(商理局)으로 개칭되었고, 부상을 좌단, 보상을 우단으로 개칭했다. 1894년 농상아문에 속하면서 보부상들이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신표가(信標價)를 받는 대신 장시의 지배권을 부여하면서 보부상단의 어용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1897년(광무 1)에 창립된 황국협회로 보부상단들을 이속시켰고, 1899년 상무사(商務社)로 개칭되어 육의전과 보부상을 통합했다.

① 대동미의 주된 수송 상인: 경강상인

② 객주에 대한 설명

③ 대한제국 정부의 보수파 관료들은 고종에게 독립 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국을 세우려 한다고 모함하고 보부상 단체인 황국 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를 강제 해산하였다.

④ 개성 상인(송상)

⑤ 일제하에 특별히 비호 받은 상인은 없음

32. 다음은 광복 후 우리나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회의의 결정을 요약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하며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
> (가)
>
> · 이들의 역할은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독립 국가 수립을 도와줄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또, 조선 임시 정부 및 민주주의 단체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① 한반도 통일 정부를 구성하는 구체적 절차를 논의한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③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좌우 합작 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일본 군대를 무장 해제한 후 미·소 양국 군대 철수를 논의한다.

정답: ③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12)

1945년 12월 16~25일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戰後) 문제 처리를 위해 소집한 외상회의.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4개국 대표에 의한 신탁통치를 기본 취지로 하는 미국측의 제안과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을 기본 취지로 하는 소련측의 수정안이 토론되었다. 회의 결과 12월 28일 영국의 동의로 협정이 체결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다.

첫째,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고, 일본 통치의 잔해를 빨리 청산할 조건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a provisional democratic government)를 수립한다.

둘째, 연합국이 <u>한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원조·협력할 방안의 작성은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소공동위원회**가 수행한다</u>.

셋째,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4대 강국에 의한 신탁통치의 협정은 한국 임시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4개국이 심의한 후 제출한다.

이 협정내용에 대해 충칭 임시정부의 추대를 주장하던 한국독립당·한국민주당 등의 우익세력은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국제적 원조방안으로 선전하면서 신탁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반면에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등은 3상회의의 결의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국제적 합의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좌우익의 대립에 미국·소련의 대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통일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은 실현되지 못했다.

33. 다음은 조선 후기 사상의 변화에 대한 논문의 목차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점]

사상계의 새로운 변화

1. 배경 : 성리학의 절대화 및 형식화……………………(가)
2. 새로운 사상의 수용
   (1) 양명학의 수용 ……………………………………(나)
   (2) 천주교의 전파 ……………………………………(다)
3. 동학의 발생 ……………………………………………(라)

〈 보 기 〉

(가) – 윤휴, 박세당 등이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나) –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호락 논쟁이 벌어졌다.
(다) – 유교의 제사 의식을 거부하여 탄압을 받았다.
(라) – 시천주,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였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정답: ③

* 조선 후기 사상계의 변화

(가) **성리학의 절대화 및 형식화**
인조 반정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서인은 의리 명분론을 강화하며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 하였다.

반면, 서인들의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6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도 17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윤휴와 박세당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며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었다.

(나) **양명학의 수용**
성리학의 교조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이미 중종 때에 조선에 전래되었던 새로운 유학 사상이다. 17세기 후반 소론 학자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그 뒤 정제두가 학문적 체계를 갖추면서 양명학은 사상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18세기 초 정제두가 강화도로 옮겨 살면서 양명학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써 강화 학파라 불리는 하나의 학파를 이루었다.

* 18세기 이이 학파를 계승한 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호락 논쟁을 벌였다.

(다) **천주교의 전파**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 경이었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 제사의식을 거부하며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라) **동학의 발생**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창도하였고 19세기 후반의 조선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유불선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였고 반봉건 반외세를 부르짖었다.

34. 다음 지도는 우리나라 여러 왕조의 도읍지를 표시한 것이다. (가)~(마)와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고구려는 국가 체제 정비를 위해 도읍을 (가)로 옮긴 후에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② 고려가 (나)를 도읍지로 정한 이유는 북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조선은 태조 이성계의 출신지였던 (다)를 도읍으로 삼았다.
④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가 함락된 백제는 (라)로 천도하였다.
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에 (마)에서 다른 지역으로 천도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정답: ⑤

* 도읍지의 특색

① 광개토대왕의 위업을 계승하여 고구려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왕은 장수왕이었다. 영토가 넓어지자, 다시 안으로 체제를 정비할 필요를 느낀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옮기고(427),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다.

불교 수용(372)과 율령 반포(373)를 통해 체제를 정비한 왕은 소수림왕이다.

* 고구려 수도 변천: 졸본성(BC 37, 요녕성 환인현) -> 국내성(AD 4, 유리왕, 길림성 집안현) -> 평양성(427, 장수왕)

② 개성이 아닌 평양이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중시되고 고려 초기에 분사 제도를 실시하였다

③ 조선 태조 이성계의 출신지는 함남 영흥 지역이다

④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가 함락된 백제는 문주왕 때 웅진(공주)로 천도하였다(475), 사비는 그 이후 성왕 때 천도한 것이다(538).

⑤ 통일 직후인 신문왕 때 달구벌(대구) 천도 움직임이 한 때 있었다(689)

3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나)

(다)

(라)

(마)

① (가) -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신도의 하나이다.
② (나) -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을 그린 풍속화이다.
③ (다) - 고려 시대 관음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④ (라) -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⑤ (마) - 민중의 미적 감각과 소박한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정답: ②

* 고분 벽화 및 각종 그림

① 평남 강서대묘 '사신도' 중 '청룡도'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중국 길림성 집안현 각저총 '씨름도'
역사(力士)들의 크고 길게 째진 눈이나 큼직한 매부리코로 보아 고구려 사람이기보다는 서역인 같은 인상을 풍기고, 중앙아시아 계통의 모줄임 천장을 지니고 있고, 그 밖에 각종 문양에도 중앙아시아적인 요소들이 보이고 있다.

③ 혜허의 '양류관음도'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 내용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및 관음보살도가 많았다. 일본에 전해 오고 있는 혜허가 그린 관음보살도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④ 정선의 '인왕제색도'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 세기에 활약한 정선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⑤ 조선 후기 민화 중 '까치호랑이'
조선 후기에는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민화도 유행하였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을 기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런 민화에는 소박한 우리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36.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점]

> 영의정 홍순목이 아뢰기를, "… 일전에 훈련도감 출신 군졸들에게 늘료를 나누어 줄 때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도감 출신 군졸들이 응당 받아야 할 곡식을 섬을 완전히 채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각각 1섬씩을 들고서 말하기를 '13개월 동안 주지 않은 늘료 중에서 이제 겨우 한달치 나누어 주는 것이 이렇단 말인가?' 하고는 해당 고지기를 구타하여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어 또, 선혜청 위로 돌멩이를 마구 던져 해당 낭청이 피신하는 일까지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입니까?"라고 하였다.

〈 보 기 〉

ㄱ. 청은 흥선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였다.
ㄴ.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ㄷ. 외국 상인의 내륙 통상이 허용되어 조선 상인들의 피해가 커졌다.
ㄹ. 청은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 임오군란(1882)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구식 군인, 하층민 등에 의해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이에, 민씨 세력은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서울에 들어온 청의 군대는 일시 집권한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잡아갔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고문 파견: 마건창, 묄렌도르프)과 경제 침략(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양화진 지출, 내지 교역)을 강화하였고, 일본도 조선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보호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후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받아내고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켰다. 또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을 체결하여 일본 상인의 내륙 진출과 일본 외교관의 내륙 여행을 허락받았다.

㉠ 흥선대원군이 3년 동안 청에 압송 연금되었다

㉡ 군민들이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으므로 일본은 이에 대한 피해 배상과 더불어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군대를 주둔시켰다

㉢ 청의 원군을 통해 청의 압력과 간섭이 심해지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내륙통상이 확대되어 이후 외국상인들의 침투가 심화되고 조선 상인들(보부상.객주)의 피해가 컸다

㉣ 청은 외교고문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정치.군사고문으로 마건창을 파견하여 국정을 간섭하였다

37. 다음 주장에 따라 시행된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한 물건의 값이 3, 4배 혹은 수십, 수백 배까지 되어 그 폐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은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마땅히 별도로 1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로 백성에게서 쌀을 거두되, 토지 1결마다 두 번에 걸쳐 8두씩 거두어 본청에 수납하게 하고, 본청은 그때의 물가 시세를 보아 쌀로 방납인에게 지급하여 수시로 무역해서 납부하게 하소서.

〈 보 기 〉

ㄱ. 진상과 별공이 폐지되어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졌다.
ㄴ. 답험(踏驗)에 따른 관리의 농간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였다.
ㄷ.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ㄹ. 처음 시행된 지 100년 만에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대동법(공납의 전세화)

대동법은 공납의 폐해인 방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조선 후기의 제도로 가호별 부과되던 기준을 토지결을 기준으로 하여 내기 쉬운 쌀(결당 12두) 또는 포, 화폐로 내게 한 제도이다. 이는 지주들의 부담을 크게 하므로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약 100여년이 걸렸다.

또한 국가의 필요한 물품은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을 통하여 공급되므로 이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왔다

㉠ 대동법은 상공만 폐지 된 것이지 진상과 별공은 폐지되지 않았다

㉡ 답험이란 세금이나 소작료를 제대로 거두기 위하여 관련 논밭에 가서 농작(農作)의 상황을 실지로 조사하던 일인데, 대동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대동법의 직접적인 원인은 방납(조선시대 공물(貢物)을 대신 납부하고 이자를 붙여 받은 일)이다

㉢ 공인을 통한 관수품 조달로 인함이다

㉣ 지주들의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이 있으므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함경도.평안도는 자체적인 군사비와 사신접대비 마련을 위해 대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38. 다음 (가)는 어떤 조약이 체결된 계기이고, (나)와 (다)는 그 조약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2점]

> (가) 20일, 이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군함이 접근하였다. 음료수를 찾는다는 구실로 보트에서 사람들이 내렸다. 이들이 제지 명령을 듣지 않고 함부로 접근하자, 이곳을 지키던 조선군 포대에서 사격을 하였다. 군함에서도 곧바로 조선군 포대를 향해 대포로 응사하였다. 조선군 포대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군함에서 내려 조선군 대포 수십 개와 소총 등 다수의 무기를 탈취한 후에 철수하였다.
>
> (나)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하다.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하여, 그 위치와 깊이를 상세히 조사하여 지도를 만들어 양국의 선객들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
> (다) 일본국 인민이 지정된 조선국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할 경우,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할 것이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과 교섭할 때에 생긴 경우에는 조선 관원이 조사할 것이다. 단, 각각 그 국법으로 심판하되, 조금도 비호함이 없이 공평하도록 해야 한다.

① (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었다.
② (가)의 밑줄 그은 '이곳'은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불법 점령한 지역이다.
③ (나)는 해안 측량 기술이 부족한 조선이 요청하여 넣은 조항이었다.
④ (다)는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간 조항으로 양국 사이에 평등하게 적용되었다.
⑤ (나), (다) 조항은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정답: ①

* 운요호사건과 강화도조약

(가) **운요호 사건**: 1875년(고종 12) 9월 20일 일본 군함 운요호가 조선의 강화 해협에 불법침입하여 포격을 가하고 살육·방화·약탈을 자행한 사건. 이를 일본은 빌미로 일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케하였다

(나) **강화도조약 중 연안측량권 조항**

(다) **강화도조약 중 치외법권 조항**

• **강화도 조약**: 1876년 조.일간에 맺어진 최초의 근대조약. 3개 항구를 개항하는 주된 내용과 치외법권, 연안측량권을 인정하는 불평한 내용을 동시에 갖고 있다

① 운요호 사건(1875): 일종의 포함외교로 강화도 조약을 유도하였다

②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키 위해 3년간 불법 점령한 곳은 거문도이다(1885~1887)

③ 해안측량권은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조선 침투 목적으로 넣은 것이다

④ 치외법권은 당사자 중 일본에게만 주어진 불평등한 조항이다

⑤ 임오군란의 원인은 민씨 정권의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온 것이지 해안측량권, 치외법권과는 관계가 없다.

39. 다음 ○○에 들어가야 할 상품으로 옳은 것은? [1점]

> 교토의 니시진(西陣)은 지금도 화려한 기모노를 만드는 지역으로 유명한데, 17~18세기에는 조선 상인이 이곳의 직물 업자에게 중국의 생사를 공급했다. 그 대가로 조선 상인은 일본의 은을 받아 중국에 가서 다시 생사와 비단을 구입하는 중계 무역을 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을 잇는 실크로드와 실버로드가 형성된 셈이다. 그렇지만 이때 조선에서 생산된 ○○이(가) 고가로 일본과 중국에 수출되었기 때문에, 이 무역로를 ○○길(로드)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① 황금 ② 구리 ③ 인삼 ④ 자기 ⑤ 종이

정답: ③

* 조선 후기 대외 무역(수출품: 인삼)

인삼은 조선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수출품이고 개성 상인(송상)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 되면서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중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은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이었으며, 개성의 송상은 양자를 중계하며 큰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① 황금을 수출하는 나라는 없다

② 구리는 은, 황, 후추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품이다

③ 인삼, 쌀, 무명은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이다

④ 우리나라가 자기가 유명하지만 수출까지는 아니었다.

⑤ 종이는 조선의 수출품이긴 하나 종이길로까지 불릴 정도로 인기품은 아니었다

40. 다음과 같은 일이 전개된 시기의 국제 정세로 옳지 <u>않은</u> 것은? [2점]

>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붕괴되었다. 고종은 국가의 자주 독립을 내외에 보여 주기 위하여 황제에 즉위하고 대한 제국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황실이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각종 학교를 세우고 상공업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토지를 새로 측량하여 조세 징수 체계를 정비하고, 철도 건설과 시가지 개수(改修)를 시도하였다.

① 한반도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② 러시아가 청과 국경 조약을 체결하여 연해주에 진출하였다.
③ 일본은 삼국 간섭으로 인해 요동 반도를 청에 돌려주어야 했다.
④ 프랑스가 러시아의 후원으로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⑤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세력의 확대를 우려한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였다.

정답: ②

* 대한제국기(1897~1910)의 역사적 사실

대한 제국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권을 강화하였다. 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고,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은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u>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이권 침탈)</u>.

① 을미사변, 을미개혁(1895) 등으로 조선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일본과 아관파천(1896)으로 응수하는 러시아와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② 러시아의 연해주 진출은 베이징 조약(1860) 이후이다

③ 삼국간섭(1895)

④ 프랑스의 경의선 철도 부설권 획득(1896.7)

⑤ 영일 동맹(1차: 1902, 2차: 1905)

41. 다음 글의 밑줄 그은 '이것'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2 점]

> 우리가 이것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 속에 있는 내외국 인민에게 우리의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 아시게 하노라. …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요,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 많이 있을 터이요, 불평한 마음과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질 터이다. …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른즉,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함이다.

①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대중을 계몽하고자 하였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열흘에 한 번씩 한문판으로 발행되었다.
③ 주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민족 정신의 고취와 국민 계몽에 힘썼다.
④ 3·1 운동 직후 창간되어 민족 사상의 고취, 재난 동포 구호 등의 운동을 폈다.
⑤ 문명 개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은 개신 유학자들이 대중 계몽을 위해 창간하였다.

정답: ①

* 최초의 민간 신문 독립신문(1896~1899)

아관 파천 후 서재필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1896).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의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최초로 한글만을 사용한 한글판은 국민들을 계몽하고 정부의 시책을 널리 알렸으며, 영문판은 우리의 사정을 외국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였다. 독립 협회가 설립되자 이 신문은 협회 기관지의 성격을 띠면서 자주독립 정신과 근대적 민권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으로 서재필이 신문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독립신문”은 결국 폐간되고 말았다(1899).

① 자강개혁 계몽을 위해서 서구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였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1883)이고 관보이며 한문판이다

③ 제국신문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문(한글)신문이다(1898)

④ 3.1운동 직후 창간된 신문은 조선.동아일보이다(1920)

⑤ 개신 유학자들이 참여한 신문은 황성신문이다(1898)

42. 다음 표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2 점]

연도	생산고(천석)	일본으로 반출된 양(천석)	조선인 1인당 소비량(석)	일본인 1인당 소비량(석)
1912	11,568	2,910	0.7724	1.068
1917	13,933	1,296	0.7200	1.126
1920	12,708	1,750	0.6301	1.118
1925	13,219	4,619	0.5186	1.128
1930	13,511	5,426	0.4508	1.077

출전 : 조선 총독부, 『조선미곡요람』, 1934.

① 조선인의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잡곡 생산이 크게 늘어났다.
② 일본으로 쌀이 대량 반출되면서 조선인 대지주가 몰락하였다.
③ 산미 증식 계획의 추진으로 소작농이 줄어들고 자영농이 늘어났다.
④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 농민들이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⑤ 1930년대 초 일본에 불어닥친 농업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산미 증식 계획을 강화하였다.

정답: ④

* 1910년대~1920년대의 한반도의 식량상황과 산미증식계획(1920년대)

일본의 급속한 공업화로 약해진 농업 부문을 인한 식량부족을 한반도에서의 쌀증산을 통해 해결하고자 일으킨 운동이 산민증식계획 운동이다. 증산목표에 못미치는 생산량이 나왔지만 일제의 반출 목표량은 계획대로 증산 되었기에 조선인의 식량 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만주에서의 값싼 잡곡으로 해결하였고, 식민지지주제의 심화에 따라 증산에 필요한 비용이 소작인들에게 전가됨에 따라 농민의 대다수인 소작인들의 고통은 더욱 컸다

① 쌀소비가 준 것은 맞지만 잡곡생산이 는 게 아니라 만주에서의 값싼 잡곡의 수입이 는 것이다

② 지주들은 오히려 쌀 수출로 이익을 얻고 소작농들이 전가된 증산비용으로 몰락하고 고통받게 되었다

③ 농민몰락은 더더욱 소작농의 증가와 자영농의 몰락을 가져옴

④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으로 토지를 잃고 몰락한 농민들은 새삶을 찾아 만주. 일본 등으로 이주하게 됨

⑤ 1930년대 들어오면 오히려 과잉생산으로 산미증식계획을 중단하게 되고 총동원령(1938) 이후 다시 재개됨

43. 다음의 (가)는 어느 단체의 결성 당시 강령이고, (나)는 뒤에 나온 수정안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나) • 우리는 조선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기함.
• 우리는 전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 기관이 되기를 기함.
• 우리는 일체 개량주의 운동을 배척하여 전 민족의 현실적 공동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기를 기함.

① 임시 정부 통합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활동하였다.
② (나)를 발표하여 민족 협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 노선을 제시하였다.
③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각 도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④ 모든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을 위한 민족 협동 전선이었다.
⑤ 사회주의자가 이 단체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민족주의자들은 해체를 주장하였다.

정답: ②

* 좌우 합작 단체 신간회(1927~1931)

이광수는 1924년 1월 동아일보에 논설 '민족적 경륜'을 실었다. 자치론으로 불리는 그의 주장은 '조선의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치론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와 연합하여 조선 민흥회를 만들었다. 한편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는 1926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민족 협동 전선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조선 민흥회에 속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신간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이상재를 회장으로, 홍명희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곧이어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일본 및 만주에까지 그 조직이 확대되었다.

신간회는 전국 순회강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일제의 식민 통치의 잔학상을 규탄하였다. 또한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지원하고 청년 운동, 여성 운동, 형평 운동 등과도 연계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코민테른에서 계급성을 강조하는 노선이 채택됨으로써 <u>국내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신간회 해소론이 제기되었다</u>. 결국 신간회는 1931년 해체되고 말았다. 신간회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민족 협동 전선으로 반일 사회운동 단체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① 임시정부 통합운동이 전개되던 시기는 1919년 3.1운동 직후에서 9월까지이다

② (나)의 내용을 보면 ".전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하여..."라는 글귀를 볼 때 좀더 이전보다 적극적인 협동전선을 펼쳤음을 볼 수 있다

③ 일제하의 합법적 정치조직으로서 군대조직을 갖출 수 없다.

④ 모든 민족주의 노선이 아니라 일제와 타협을 부르짖는 자치론자(개량주의)들을 배제하였다(기회주의자)

44. 다음 사항들이 초래한 결과와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일본의 독점 자본은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선의 북부 지방을 대상으로 군수 산업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였다.
- 조선 총독부는 이른바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하여 남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면화 재배를, 북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양을 기르도록 강요하였다.

〈보 기〉

ㄱ. 공업 발전의 지역적 편차를 알아본다.
ㄴ. 소비재 생산의 추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ㄷ. 경공업과 중공업 간의 불균형 정도를 알아본다.
ㄹ. 일제 강점기 공업 생산액과 농업 생산액의 변화를 알아본다.
ㅁ. 토지 조사 사업 전후 토지의 이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④

* 1930년대 병참기지화 정책

1931년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대륙 진출을 위하여 조선을 군수 물자 조달의 기지로 삼는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치고 지하자원이 많은 북부 지방(특히 관북 지방)을 적극 개발하고 중화학업 위주로 육성하게 되었다

㉠ 북부 지방과 타 지역과의 공업 발전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 이 정책은 철저히 군수물자 조달을 위하여 생산재 중심이 되고 소비재 생산을 극도로 억제하였다

㉢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정책

㉣ 일제 초기 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으로 농업 생산량 증대를 노렸고, 30년대 이후로는 공업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이다

㉤ 농민들은 토지 조사 사업(1912~1918)으로 관습적인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소작농들은 지주들과 기한제 소작 계약을 맺어 불리하게 되었다. 또한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간도나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45. 다음 국왕의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 점]

> • 임금으로 즉위해서는 이른 새벽에 옷을 입고, 날이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윤대(輪對)하고 경연에 나아갔는데,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었다.
> • 신하를 부림에는 예의로써 하고 간언을 따라 어기지 않았으며, 정성으로 사대하고 신의로 이웃 나라와 사귀었으며, 인륜을 밝히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북이 복종하고 사방 국경이 평안하여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즐긴 지 무릇 삼십여 년이 되었다. 성스런 덕이 높고 높아 무어라 이를 수 없어, 이때에 '해동의 요순'이라 칭송하였다.

〈보 기〉

ㄱ.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ㄴ.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ㄷ.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유교 문화 보급에 힘썼다.
ㄹ. 요동 정벌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ㅁ. 삼포를 열어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해약조를 맺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②

* 조선 세종 대왕의 업적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며, 유교통치를 추구하며 민족문화의 발달과 4군 6진 개척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 영토를 이루셨다

㉠ 조선 세종 때 창안된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有量樂譜: 음의 장단, 고저를 표현).

㉡ 태종 때에 기존의 중서문하성을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산하의 간쟁업무를 보던 낭사를 따로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케 하였다

㉢ 세종은 유교통치를 위하여 삼강행실도를 통해 유교문화 보급에 힘썼다

㉣ 태조 때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으나 1차 왕자의 난(1398)으로 정도전이 죽음으로써 무산되었다

㉤ 세종 때 계해약조를 통해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 3포를 개항했다(1443)

46.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남쪽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한다.
>
> (나) 현실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필요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① (가)는 신한 청년단의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② (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임시 정부를 마지막까지 이끌었다.
③ (나)는 군사 특파단을 시안에 파견하였고, 한국 독립당을 이끌었다.
④ (나)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민족 통합을 위해 친일파 처벌을 반대하였다.

정답: ③

* 이승만의 단독 정부론과 김구의 통일정부론

(가) 이승만(1946.6 정읍발언: 단정론 주창)
(나) 김구(1948.4 삼천만동포에 고함: 통일정부론 주창)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 4.).

① 신한청년당 대표: 김규식

② 이승만은 임정 초대 대통령은 맞지만 1925년 탄핵되어 물러나고 끝가지 이끈 사람은 김구 주석이다

③ 1940년에는 중경(重慶)에서 광복군 총사령부의 성립식을 거행하였으며, 임시정부는 기강으로 옮긴 뒤, 5월 전당대회를 개최, 각 단체를 통합하여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당하고 그 집행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군사특파단(軍事特派團)을 섬서성 서안(陝西省 西安)에 상주케하여 무장부대 편성에 주력하였다.

④ 건준위는 여운형이 주도하였다

⑤ 이승만은 반공을 앞세우므로 친일파 처벌에는 소극적이지만 김구선생은 적극적 입장이다

47. 밑줄 그은 '이 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정전 협정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고위급 정치 회담을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관계 각국 정부는 이 회담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사항과 한국 문제 및 기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 - 정전 협정 제60조, 1953. 7. 27. -

①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한국과 북한, 유엔 참전국, 중국, 소련 등이 참여하였다.
③ 포로 송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④ 한국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다.
⑤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을 결정하였다.

정답: ②

* 제네바 극동평화회의(1954.4)

한국의 통일문제와 인도차이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열린 국제회의를 말한다.

한국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제연합 참전 16개국, 그리고 북한·소련·중국 등이 참가하였다. 개회 초에 영국이 제안한 '국제연합 감시하의 한국통일 5개 원칙'을 가지고 토의하였고, 한국은 5월 22일 ① 국제연합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며, ② 자유총선거를 위하여 언론자유·인권보장·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③ 이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제연합군의 완전철수가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한국통일에 관한 14개 원칙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6월 5일 모든 외국군의 철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5개항의 제안을 하였고, 북한은 6월 15일 모든 외국군의 우선 철수와 그 후의 모든 절차를 토의하기 위한 전한국위원회(全韓國委員會)의 구성 등 6개항의 제안을 하였다. 회의가 진전 없이 결렬상태로 들어가게 되자 국제연합 참전 16개국은 15일 "국제연합헌장에 의거하여 침략자를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시키는 일과 진정한 자유선거에 의한 한국통일을 충심으로 열망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자유선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한국문제를 토의할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요지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대표단을 철수시킴으로써 회의는 성과없이 끝났다.

①, ③은 휴전회담(1953.7.27)에 관한 내용
④ 카이로 회담(1943)
⑤ UN 감시하의 총선실시 결의(1947.9)

48. 다음 연표의 ㉠~㉤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을 옳게 연결한 것은? [2점]

① ㉠ –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구성
② ㉡ – 김규식과 여운형의 좌우 합작 운동 추진
③ ㉢ – 반민 특위 구성과 활동 시작
④ ㉣ – 통일 정부 구성을 위한 남북 협상
⑤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정답: ②

* 해방 이후 연대기 문제

㉠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1946.12):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1946.7)속에 미군정하에 45명의 민선의원(한민당계+이승만계)+45명의 관선의원(좌우합작파 중심)이 설치되고(의장:김규식) 형식상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위임(1947.2 미군정장관아래 민정장관 안재홍 취임:과도정부 수립)

㉡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1946.7): 이승만의 정읍발언(1946.6: 단정론 주창)이후 단독정부수립 움직임이 있자 남북분단을 우려한 여운형(중도좌), 김규식(중도우) 등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개하였고 좌우합작7원칙을 발표(1946.10)하였고 미군정도 이를 후원하기도 했으나, 1947년 미국의 '트루먼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이 심화되고 여운형의 암살 등으로 인해 실패함

㉢ 반민특위(1949): 제헌국회에서 친일파처단을 위하여 1948.9에 제정하여 1949.8까지 활동하였다. 친일인사들을 체포까지는 하였으나 반공정책을 우선시하던 이승만정권의 비협조와 친일경찰 출신의 공격으로 시효가 단축되고 실제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남북협상(남북연석회의, 남북지도자회의 1948.4): 1948.2 유엔소총회의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결정으로 인해 민족의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남측), 김일성, 김두봉(북측) 등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했으나 실패하였다

㉤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협조하고 대항한다는 내용의 군건한 방위조약.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49. 다음 문화재를 답사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사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융릉(隆陵)의 조성 경위에 대해 알아본다.
ㄴ. 당백전의 발행 배경과 영향을 분석해 본다.
ㄷ. 한양 주위 유수부의 기능과 설치 목적을 알아본다.
ㄹ. 조선 시대 행궁의 위치와 건축 목적을 조사해 본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 조선 후기 수원 화성(정조)

조선 후기에 특기할 만한 건축물은 수원 화성이다. 정조 때의 문화적인 역량을 집약시켜 새롭게 만든 화성은 이전의 성곽과는 달리,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겸한 성곽 시설로, 주위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평상시의 생활과 경제적 터전까지 조화시킨 종합적인 도시 계획 아래 건설되었다.

㉠ 조성 경위는 정조가 그의 아버지 장헌세자(일명 사도세자, 묘는 융릉)에 대한 효심에서 화성으로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정조 18년(1794)에 성을 쌓기 시작하여 2년 뒤인 1796년에 완성하였다. 실학자인 유형원과 정약용이 성을 설계하고, 거중기 등의 신기재를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쌓았다.

㉡ 당백전은 경복궁 중건과 관련되어 있고 물가상승을 야기하였다.

㉢ 한양 주위의 4개의 유수부(수원, 개성, 강화, 광주) 중 하나이다

㉣ 행궁은 왕이 거동하실 때 일정기간씩 머무는 지방에 있는 궁으로서 수원행궁, 남한산성행궁, 북한산성행궁, 강화도행궁, 평양행궁 등이 있다

50. 다음 성명이 계기가 되어 나타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우리 국민은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장엄한 민주화 행진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파나 특수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에서부터 직장인, 상인, 변호사, 의사, 약사, 연예인, 성직자, 택시 기사, 그리고 평범한 주부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애국적 충정과 열망이 한데 어우러져 연출하는 역사적 행진이며,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적 의식 수준과 안목을 유감 없이 드러내 주는 대장정이다. 전국에 걸쳐 연인원 수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항의 시위와 끊이지 않는 경찰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만을 위해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현 정권의 정치적 무감각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적 대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① 유신 체제의 붕괴 ② 4·19 혁명의 발발
③ 대통령 직선제 개헌 ④ 내각 책임제 정부 수립
⑤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정답: ③

* 6월 민주항쟁(1987)

범국민적인 학생, 시민들의 참여가 힌트이고 이 운동은 당시 5공 헌법의 대통령 간선제를 거부하고 직선제개헌을 쟁취하는 것이 목표이었다.

87년 1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국민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가 발표되자 폭발하게 되었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 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